

아담 스미스 價値論上的 限界效用理論的 萌芽

李 翰 裕

본논문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물과 다이아몬드의 경우 제각기 그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이에 현격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붙여진 소위 ‘스미스의 價値의 逆說’의 眞面目을 검토함으로써 그의 가치·가격론으로부터 한계효용이론의 싹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즉 스미스가 다이아몬드의 사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기술했을 때는 그것이 생활상의 유용성을 거의 안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지 아름다움이나 과시적 만족 등 다이아몬드가 가져다주는 다른 측면의 주관적 가치는 크다는 것을看過한 것은 아니었고, 이 점과 아울러 다이아몬드가 아주 희소하다는 사실이 그 값을 비싸게 만든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물의 사용가치는 아주 크지만 그것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값이 싸다는 것을 인식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가치·가격론으로부터 근대 한계효용가치설의 싹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1. 序 論

아담 스미스는 물품의 가치를 使用價値(value in use)와 交換價値(value in exchange)로 나누고 前者는 어떤 물품의 效用(utility)을 나타내고 후자는 어떤 물품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다른 물품을 구매할 때 가지는 힘을 나타낸다고 정의했다. 그런데 스미스가 “물과 같이 가장 큰 사용가치를 가진 물품들은 종종 거의 全無한 교환가치를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이아몬드같이 가장 큰 교환가치를 가진 물품들은 종종 거의 전무한 사용가치를 가진다” (Smith(1937, p. 28))고 기술함으로써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스미스의 價値의 逆說(paradox)’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스미스는 상업사회에 있어서 어떤 재화를 화폐나 다른 재화와 교환할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기준을 찾는 것을 價値論의 主課題로 삼고자 했으므로 재화의 상대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의 진실한 척도를 노동량에서 찾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아가서 스미스는 어떤 재화의 진정한 교환가치(그의 용어로는 眞實價格(real price) 또는 自然價格(natural price)과 같은 것임)는 인류역사상 초기의 未開한 사회에 있어서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投下된 노동량과 일치했으나 자본의 축적과 토지

의 私有가 발생하게 된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노동생산물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투하된 노동량의 가치에 해당하는 賃金 이외에도 자본에 대한 利潤과 토지에 대한 地代를 포함하여 구성된다고 주장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스미스가 원시사회에서는 투하노동가치설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지배노동가치설 또는 複合的 생산비가치설이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스미스가 재화의 가치 문제에 대해서 주장한 것만 가지고 본다면 그는 主觀的 效用이 재화의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더욱이 限界 效用 개념같은 것은 파악하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가치론에 의하면 그의 이름에 붙여진 가치의 역설은 당연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인데 바로 이러한 해석이 通說로 되어 있다.

본논문에서 필자는 이와 같은 통설에 도전하여 『國富論』을 포함한 스미스의 저작에서 한계효용가치설의 싹이라고 볼 수 있는 이론을 상당한 정도로 찾아볼 수 있고, 이 사실과 아울러 그가 사용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염두에 둔 효용개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의 이름에 붙여진 가치의 역설을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論證하고자 한다.

2. 本 論

스미스는 주관적 가치의 측면과 稀少性(scarcity)을 동시에 고려하는 일종의 限界效用價値說을 『국부론』을 집필하기 전에 행한 道德哲學 강의에서 이미 제시하였고 『국부론』에서도 論及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스미스가 살던 당시에 있어서 도덕철학은 自然神學, 엄밀한 의미에서의 倫理學, 正義에 관한 政治·法律論인 正義論 및 便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 국가의 富와 번영을 가져오는 방법을 탐구하는 政治經濟學을 뜻하는 便宜論 등을 포괄하는 하나의 종합적 人文社會科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의미의 도덕철학을 스미스가 1763-1764학년도에 강의한 내용을 당시의 어느 학생이 노트필기한 것이 뒤늦게 19세기말에 발견되어 에드윈 캐난(Edwin Cannan)에 의해 1896년에 『司法, 警察, 財政收入 및 軍費에 관한 講義』(Lectures on Justice, Police, Revenue and Arms)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고, 1762-1763학년도에 실시한 같은 성격의 도덕철학강의에 해당되는 학생노트는 1958년에 와서야 로디안(J.M. Lothian)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이 두 자료는 글라스고우대학교가 주관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가 간행한 스미스의 저작 및 서간문

총서의 일부분으로 미크(R.L. Meek) 등이 편집해서 1978년에 출간한 『法學講義』(Lectures on Jurisprudence)⁽¹⁾란 책 속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로로 출간된 『법학강의』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스미스가 주관적 가치 측면을 아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그는 사람들에게 주관적 가치를 느끼게 하는 요인을 生存과 住居에 관계되는 것들과 같이 긴요하게 사용해야 할 물품들에 대한 需要(demand)⁽²⁾와 사람의 몸과 마음의 더욱 미묘한 영역에 기초를 둔 洗鍊됨에 대한 願望(a desire for refinement)으로 구분했다. 나아가서 그는 인간의 美에 대한 嗜好가 적절한 多樣性(proper variety)과 편안한 連結(easy connection) 및 單純한 秩序(simple order) 등의 3가지 特性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특성이 選好(preference)의 근거가 되고 즐거움과 고통을 주는 契機가 되며 우리가 도저히 그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많은 하찮은 수요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Smith(1978, pp. 208-209)).

한편 스미스는 어떤 물품이 풍부하면 그 가격이 낮고 희소하면 그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법학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지적했다:

값이 싸다는 것은 사실은 풍부하다는 것과 같다. 물이 그냥 길어올리면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값이 싸다는 것은 단지 그것의 풍부성 때문이며 다이아몬드가 값이 비싸다는 것은 단지 그것의 희소성 때문이다(왜냐하면 다이아몬드의 실질적 用途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Smith(1978, pp. 205-206)).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스미스는 『법학강의』에서 이미 가치의 역설이라고 일컬어진 문제에 대한 解答을 제시해 놓았었다는 것이다. 즉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다이아몬드의 사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을 때의 사용가치는 생활상의 有用性(usefulness)을 의미했을 뿐이고 아름다움에 대한 취미 등 기타 다양한 願望(desir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니, 만약 이 다양한 願望이 考慮된다면 다이아몬드에 대한 주관적 가치는 높이 평가될 것이라는 결론이 『법학강의』에 전개되어 있는 그의 주장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다이아몬드가 지극히 희소하다는 사실까지 고려되면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즉 그 교환가치의 한 측면이 지극히 높이 평가되리라는 것은 前述한 바

(1) 이 책 속에는 『국부론』의 草稿와 “分業에 관한 두 斷章”(Two Fragments on the Division of Labour)이란 논문도 포함되어 있다.

(2) 현대적 해석으로는 이것을 基本的 必要(basic need)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학강의』에서의 스미스의 주장과 일치한다.

스미스의 가치론에 대한 通說的인 解釋은 그가 『법학강의』에서 提示한 주관적 한계효용 가치설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아예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 看過해 버리고 다만 『국부론』에서 그가 주관적 효용 측면은 無視한 채 객관적 노동 또는 생산비 가치설을 채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의 見解로는 스미스가 『국부론』에 있어서도 주관적 한계효용가치설을 無視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음과 같은 『국부론』의 서술에서도 스미스가 이미 근대 한계효용가치설과 비슷한 이론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들(귀금속류)의 최고 가격은 그것들 자체의 실제적인 회소성이나 풍부성 이외의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다. …… 金의 회소성을 어느 정도 더 심하게 하면 그것의 최소부분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비싸질 것이고 다른 재화의 훨씬 많은 양과 교환될 것이다. 이러한 금속들에 대한 수요는 한편으로는 그것들의 효용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발생한다. …… 그런데 이러한 귀금속들의 주된 장점은 옷이나 家具의 장식물로 특별히 적합한 그것들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발생한다. …… (그리고) 그것들의 아름다움의 장점은 그것들의 회소성에 의해 크게 伸張된다[Smith(1937, pp. 171-172)].

여기서 스미스가 염두에 둔 효용개념인 유용성에다가 이 개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적한 아름다움과 회소성을 덧붙여 고려하면 근대 한계효용학파의 한계효용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스미스의 가치의 역설은 그가 한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본 사용가치 또는 효용개념을 적용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지 그가 造語하지는 않았어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대적 한계효용개념(유용성과 아름다움 및 회소성이 모두 고려된 개념)을 적용하면 발생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스미스가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장 큰 교환가치를 가진 물품들이 거의 全無한 사용가치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 사용가치는 일상 생활에서의 유용성을 의미했을 뿐이고 위에 引用한 그의 서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회소성 및 後術하는 바와 같은 誇示效果的 만족감을 주는 特質까지 고려하면 그것이 높은 교환가치를 가지는 것은 스미스가 서술한 바에 의해서 해명되고도 남는 것이다. 그리고 물과 같이 가장 큰 사용가치를 가지는 것이 거의 全無한 교환가치를 가진다는 스미스의 주장은 회소성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풍부할 때는 그 반대라는 스미스 자신의 주장에 의해 해명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스미스는 아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관적 효용의 한 특수

한 측면을 이루는 과시효과적 소비에서 느끼는 만족감까지 높은 가격형성의 한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다수의 富者들에게 있어서 富에서 느끼는 주된 만족은 그들 이외에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부유의 결정적 徵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느낄 때 이상으로 그들 자신의 눈에 완벽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그러한 부를 과시하는 데 있다. 그들의 눈에는 어느 정도 로든지 유용하거나 아름다운 어떤 물품의 長點은 그것의 희소성에 의해서나 또는 그것을 어느 정도의 양만큼 수집하는 데 所要되는 많은 노동량, 그것도 그들 이외에는 아무도 지불할 여유가 없는 그러한 노동량에 의해서 크게 신장된다. 이와 같이 희소한 물품들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유용하나 보다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보통의 물건들보다 부자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사고자 한다. 이러한 효용, 아름다움 및 희소성 등의 특질이 그러한 귀금속들이 높은 가격을 지니고 어디서든지 다른 보통의 재화들의 아주 많은 양과 교환될 수 있는 것을 설명해줄 수 있는 원천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다(Smith(1937, p. 72)).

이 인용문에서 지적되고 있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치품을 수요하게 만드는 하나의 주요한 동기를 이루는, 誇示效果的 만족감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미국 경제학계 일각에서 부상했던 制度學派에 의해서 특히 강조된 것이다. 고전학과 및 한계효용학과 이론에서는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사실은 스미스에 의해서 이 점이 분명히 고려되었던 점은 무시된 채 — 베블렌(Thorstein Veblen) 등이 통렬히 비판하였던 점을 상기할 때 스미스에 대해서는 이 비판이 적용될 수 없으며 그의 이론이 얼마나 다양성과 포괄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스미스가 이와 같이 포괄적인 가치론을 부분적으로는 제시했지만 그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一般理論化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가 일반화하는 데 주력했던 가치론은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은 노동가치설 및 생산비가치설적 성격의 것이었던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왜 스미스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치론을 일반화하는 길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필자가 생각하는 그 이유 몇 가지를 아래에 제시하겠다.

첫째, 스미스가 객관적이고 不變인 일반적 가치척도를 찾다 보니 노동량이 그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가 貨幣나 金·銀 및 穀物까지도 그 자체의 가치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를 재는 척도로 사용될 수가 없고, 그 相異한 質的 측면을 감안하여 調整된 量的 指標로서의 노동의 一定 單位는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어서 不變이라고 보아서 이 노동량만이 불변의 가치척도로 채택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그의 건강과 체력 및 정신이 平常的인 상태이고 보통 정도의 熟練과 技巧을 가진 노동자가 自身の 安樂과 자유와 행복의 똑같은 일정한 부분을 (노동을 할 때) 포기해야만 한다” (Smith(1937, p. 33))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等量의 노동은 언제 어디서나 同一한 勞苦와 苦痛(toil and trouble)을 노동자가 감수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노동량을 잴 수 있고 이 노동량이 상품가치의 불변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스미스는 생각했던 것이다.

둘째, 스미스가 살던 당시의 경제적 기술적 조건하에서는 노동량은 최저생계비라는 거의 불변의 비용으로 끊임없이 고용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하에서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 있는 보통의 상품에 대해서는 각 상품이 스미스가 염두에 두었던 사용가치를 어느 정도씩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名其의 생산을 위해 노동량의 配分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想定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事前的 원인으로서는 계측하기가 어려운 사용가치를 제쳐 놓고 노동량으로 교환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보통의 다수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필수품과 편의품의 교환가치 결정원리를 일반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실질적이고 평균적인 경제적 福利를 염두에 둔 스미스의 경제적 정의의 관점이 은연중 반영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지극히 최소하고 사치적인 물품의 교환가치 결정원리는 스미스가 일반화한 가치론이 아니라 前述한 바와 같은 부분적으로 제시한 것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물품들은 소수의 사치적인 부자들만의 수요 대상이기가 쉽고 또한 전체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하여서 일반화된 원리로 다루는 데서 제외해도 좋다고 생각했음직하다.

그런데 스미스가 생산비가치설에 기반을 둔 自然價格論을 주장했지만 시장가격론을 포함한 그의 포괄적 가격론은 가격결정과정에서 공급조건뿐만 아니라 수요조건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看過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스미스는 토지의 私有가 있고 私的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금과 아울러 지대와 이윤도 재화의 교환가치의 세 가지 원천이고 사회의 상이한 세 계급의 소득의 排他的인 원천이라고 봄으로써 생산비가치설이 적용된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고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搬出하는 데 사용된 토지·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自然率로서의 配分, 즉 자연률로서의 지대·임금·이윤을 합제한 適正 生産費를 지불하는 데 過不足이 없는 가격을 자연가격이라고 命名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스미스가 어떤 상품의 자연가격을 지불할 의사

와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의 수요를 有效需要(effectual demand)⁽³⁾라고 부르고 그때 그때 시장에 제공된 短期 공급량과 유효수요와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불렀던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시장가격이 자연가격과 일치하자면 자연가격 수준에서의 공급량이 유효수요량과 일치해야만 하고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시장가격은 자연가격으로부터 乖離된다고 스미스는 주장했는데,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시장가격뿐이라고 본다면 자연가격도 결국 수요조건을 전제로 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가격과 媒介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에 공급되는 어떤 상품의 양이 유효수요보다 적을 경우에는 購買 希望者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서 시장가격은 자연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고 그 공급량이 유효수요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매 희망자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서 시장가격은 자연가격 밑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 시장가격이 자연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초과하느냐 하는 것은 공급량이 부족한 정도와 구매 희망자들이 부유하고 奢侈한 정도와 그들에게 상품의 획득이 중요한 정도 등이 경쟁의 열기를 얼마만큼 높이는가에 달려 있고, 후자의 경우에 시장가격이 자연가격을 얼마만큼 밑도느냐 하는 것은 공급량의 초과 정도와 상품을 즉시 처분하는 것이 공급자들에게 중요하고 다급한 정도가 그들 사이에 얼마만큼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스미스는 설명하는데 이러한 그의 시장가격결정론은 신고전학파의 수요공급이론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가격은 신고전학파의 長期正常價格(long-run normal price) 또는 長期均衡價格에 상응하는 것이 되고, 그가 말하는 시장가격은 신고전학파의 단기균형가격에 상응하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스미스의 가격론은 신고전학파적 수요공급이론에 包容될 수 있는 면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스미스가 明示的으로 一般化한 가치론은 노동가치설 및 생산비가치설이었지만 그의 저술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稀少性이 감안된 효용, 즉 限界效用의 크기에 의해 재화의 가격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의 가치·가격론의 종합적 體系는 수요·공급 균형가격설로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유효수요(effectual demand)는 이와 같은 특수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나 케인즈에 의해서 사용되는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3. 結 論

이제 본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필자는 스미스의 가치·가격론에서 한계효용가치설의 싹을 찾아볼 수 있고 이 점과 아울러 생활에의 유용성에 초점을 맞춘 그의 사용가치 즉 효용개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는 소위 스미스의 가치의 역설이라고 일컬어지는 命題도 별 무리 없이 해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했다.

그러면 어떤 논리로 스미스가 교환가치의 결정원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한계효용가치설적 측면을 무시하지 않았고 가치의 역설은 역설이 아닌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본론에서 詳論한 바와 같이 스미스가 다이아몬드의 사용가치가 거의 없다고 기술했을 때는 그것이 생활상의 有用性を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지 아름다움이나 誇示的 만족 등 다이아몬드가 가져다주는 다른 측면의 주관적 가치와 그것의 특수한 희소성을 감안한다면 그것에 높은 시장가격이 매겨지리라는 것을 否定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미스가 물의 사용가치 즉 생활에의 유용성은 아주 크지만 그것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교환가치는 거의 갖지 않는다고 본 것은 결국 물의 효용은 아주 크지만 그것이 너무 풍부해서 물의 희소성 정도가 고려된 가운데서의 효용 즉 한계효용은 아주 작으므로 그것의 교환가치가 아주 작다는 원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그의 저술상의 몇몇 귀절로부터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스미스가 한계효용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고 定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上述한 바 그의 『법학강의』에서 희소성의 정도가 가격의 高低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敍述을 하였음을 감안할 때 어떤 재화의 희소성의 정도가 고려된 가운데에서의 효용의 크기가 교환가치 또는 가격의 고저를 결정한다는 한계효용이론의 싹을 그의 가치·가격론으로부터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물론 한계효용가치설을 명백히 주장하는 것은 後世人의 몫으로 남겨졌음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스미스가 사용가치의 개념을 생활상의 유용성으로 局限해서 보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경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괴리가 현격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 사이에 현격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 후세인들이 命名한 — 스미스의 가치의 역설이 당연한 지적으로 여겨져왔으나, 그가 파악한 좀더 포괄적인 의미의 주관적

가치와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본 희소성 개념을 동시에 감안해서 본다면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 사이의 괴리가 완화되어 가치의 역설적 성격도 稀釋될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스미스가 파악한 주관적 가치를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근대경제학상의 효용개념과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限界效用學派 등장 이후의 近代경제학에 있어서 효용은 스미스가 말한 생활상의 유용성으로서의 사용가치도 의미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주관적 가치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스미스도 그와 같이 포괄적인 주관적 가치와 희소성이 가격에 반영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크게 보아 적어도 스미스의 시장가격론은 한계효용학파의 가격론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스미스와 한계효용학파의 가치·가격론상의 차이가 있다면 한계효용학파가 등장한 이후에는 가격과 乖離를 일으키는 가치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두 용어를 혼동해서 쓰게 된 반면 스미스는 自然法的 秩序에 합당한 眞正한 교환가치(즉 자연가격)와 시장가격을 구분함으로써 가치와 가격이 相馳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장가격은 결국 교환가치의 한 측면 또는 한 형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환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시장가격이라고 한다면 교환가치가 높지 않은 것이 높은 시장가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우리는 화폐 자체의 가치의 변동으로 생기는 名目가격의 변동은 감안하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스미스나 맑스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교환가치를 云謂하는 것은 어떤 불변의 본질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形而上學的 탐구의도를 은연중 표출한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스미스가 한계효용가치설을 모르지 않았으면서도 『국부론』에서 노동 또는 생산비 가치설로 그의 價値論을 一般化하게 된 것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現象의 背後에 있는 不變의 本質的인 것을 찾겠다는 實在主義(realism)의 입장과 수시로 騰落하는 시장가격의 중심적 기준가격이기도 하고 자연법적 질서에 합당하고 倫理的으로도 公正하다고 볼 수 있는 基準的 가치를 찾고자 하는 입장이 은연중 반영된 결과라고 짐작된다. 교환가치와 시장가격의 문제를 상술한 바와 같이 해석하고 스미스 가치론의 형이상학적 측면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의 한계효용가치설적 맹아는 그대로 근대적 한계효용가치설로 둔갑할 수 있을 것이고 스미스가 誇示의 소비욕구와 관련된 주관적 가치를 추가로 논하는 점에 있어서는 베블렌流의 制度學派的 관점까지 포괄하고 있어서 스미스의 주관적 한계효용가치설의 폭이 한계효용학파의 그것보다 더 넓은 측면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嶺南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전화: (053)810-2718

팩시: (053)812-5321

參 考 文 獻

Hollander, Samuel(1987): *Classical Economics*, Basil Blackwell.

_____ (1973): *The Economics of Adam Smith*, Heinemann Educational Books.

Smith, Adam(1937):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The Modern Library.

Smith, Adam(1978): R.L. Meek et al. (ed.), *Lectures on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